Press Release

최순실 파문, “朴대통령 하야·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42%	10월 27일(목) 09:30

(주)리얼미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기계회관 신관 7층 전화 : 02-548-4071(代) 8224(F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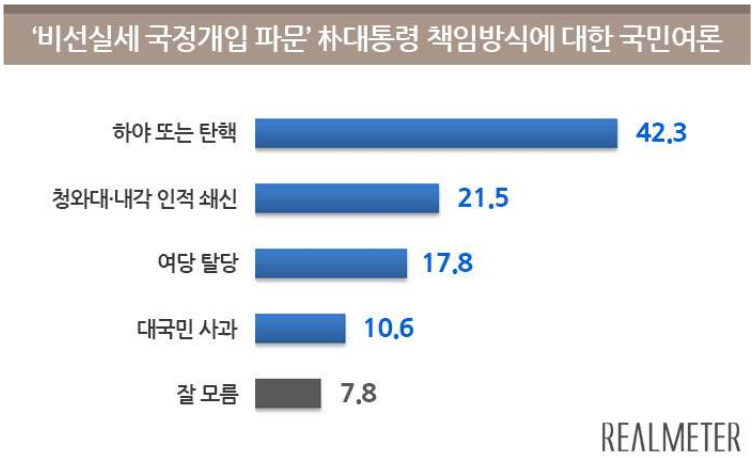
- 조사기간 : 2016년 10월 26일
-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32명
- 조사방법 : 무선(74%)·유선(26%)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스마트폰앱(SPA)·자동응답(ARS) 혼용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4.2%p

최순실 파문, “朴대통령 하야·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42%

- 청와대·내각 인적쇄신 21.5%, 탈당 및 인적쇄신 17.8%, 대국민 사과 10.6%
- TK 포함 모든 지역, 50대 이하 전 연령층, 중도층과 진보층, 무당층과 야당 지지층에서 하야·탄핵 응답이 가장 높아
- 60대 이상, 보수층,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청와대·내각 인적쇄신 응답이 가장 높아

국민 10명중 4명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거나 탄핵을 소추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파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박 대통령의 책임방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다른 방식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쇄신’은 21.5%, ‘여당 탈당’은 17.8%, ‘대국민 사과’는 10.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7.8%.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하야 또는 탄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대전·충청·세종(1위 하야·탄핵 53.8%, 2위 대국민 사과 16.1%)에서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1위 하야·탄핵 48.6%, 2위 인적쇄신 17.3%), 광주·전라(1위 하야·탄핵 44.9%, 2위 인적쇄신 23.2%), 경기·인천(1위 하야·탄핵 40.7%, 2위 인적쇄신 23.4%), 부산·경남·울산(1위 하야·탄핵 35.3%, 2위 인적쇄신 24.4%), 대구·경북(1위 하야·탄핵 32.6%, 2위 탈당 24.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위 인적쇄신 28.1%, 2위 대국민 사과 23.6%)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하야 또는 탄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0대(1위 하야·탄핵 58.6%, 2위 탈당 12.7%), 30대(1위 하야·탄핵 51.6%, 2위 탈당 20.4%)에서 50% 이상으로 높았고, 이어 40대(1위 하야·탄핵 46.0%, 2위 인적쇄신 23.1%), 50대(1위 하야·탄핵 39.3%, 2위 인적쇄신 24.8%), 60대 이상(3위 하야·탄핵 22.0%)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1위 하야·탄핵 68.1%, 2위 인적쇄신 16.2%), 민주당 지지층(1위 하야·탄핵 64.1%, 2위 탈당 17.7%), 국민의당 지지층(1위 하야·탄핵 49.0%, 2위 탈당 22.7%), 무당층(1위 하야·탄핵 34.3%, 2위 인적쇄신 22.1%)에서는 ‘하야 또는 탄핵’이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 지지층(1위 인적쇄신 36.7%, 2위 대국민 사과 32.1%)에서는 청와대·내각의 인적쇄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위 하야·탄핵 66.7%, 2위 인적쇄신 13.6%), 중도층(1위 하야·탄핵 45.2%, 2위 탈당 25.0%), 중도보수층(1위 하야·탄핵 32.5%, 2위 인적쇄신 19.2%)에서는 ‘하야 또는 탄핵’이 가장 높았고, 보수층(1위 인적쇄신 35.5%, 2위 하야·탄핵 23.7%)에서는 인적쇄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0월 26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12%), 스마트폰앱(38%), 유선(26%)·무선(24%)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74%)와 유선전화(26%)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9.7%(총 통화 5,486명 중 532명 응답 완료)를 기록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이다.

(리얼미터 트위터, 페이스북 : @realmeter)

■ 리얼미터 : 리얼미터는 2009년 11월부터 일 단위 조사를 실시하여 주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www.realmeter.net이며 문의사항은 02-548-4071(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